

第128回

國會本會議錄

開會式

大韓民國國會事務處

1985年 9月20日(金) 午後 2時

第128回國會(定期會)開會式順

- 1. 開式
- 1. 國旗에 대한 敬禮
- 1. 愛國歌 齊唱
- 1.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를 爲한 默念
- 1. 開會辭
- 1. 閉式

(司會 涉外局長 安重基)

(14時10分 開式)

○涉外局長 安重基 지금으로부터 第128回國會定期會 開會式을 舉行하겠읍니다.

먼저 國旗에 대한 敬禮가 있겠읍니다.

壇上의 國旗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起立)

(國旗에 대한 敬禮)

다음은 愛國歌를 齊唱하시겠읍니다.

錄音前奏에 따라 1節만 齊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齊唱)

다음은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에 대한 默念이 있겠읍니다.

默念은 默念曲에 따라 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默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議長님의 開會辭가 있겠읍니다.

○議長 李載湊 尊敬하는 大法院長, 國務總理를 비롯한 國務委員과 來賓 여러분!

그리고 親愛하는 議員同志 여러분!

本人은 오늘 第12代國會의 첫 定期國會인 第128回國會 開會式에서 開會辭를 말씀드립니다. 즈음하여 세상 무거운 責任感을 느낍니다.

그것은 이번 定期國會가 來年度 나라살림 살이를 總括하는 豫算案을 審議한다는 면

에서 뿐 아니라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여러 難題들을 슬기롭게 對處·解決해 주기를 期待하는 온 國民의 視線과 關心이 그 어느 때 보다도 熱度 높게 集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處해 있는 內外的 與件과 狀況은 참으로 複雜多端하고 對處하기 어려운 여러 局面을 안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政治人에게 賦課되어 있는 責任과 使命도 그만큼 重大하다 할 것입니다.

이 時點에서 앞으로 우리가 對處해 나가야 할 안락의 情勢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國際情勢는 여러분도 周知하는 바와같이 昏迷와 葛藤속에서 彷徨하고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입니다.

美·蘇 兩超強大國의 끊임없는 對決樣相은 核武器競爭의 段階에서 이제는 宇宙空間으로 舞臺가 옮겨져 이미 最尖端技術에 依한 宇宙戰爭時代로 突入한 感마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地上과 海·空戰力 擴充에도 休息없는 競爭이 持續되고 있습니다. 蘇聯의 戰力 膨脹勢가 우리 韓半島周邊에서도 얼마나 急激히 늘어나고 있는가는 익히 報道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一衣帶水의 隣接國 日本도 西海 건너의 中共도 戰力增強은 依然히 繼續되고 있으며 우리 周邊에서의 힘의 均衡은 恒常 새로운

의외로 挑撥的 要素들로 만기안과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니라 強大國의 保護貿易主義 強化는 經濟大國 相互間의 利害衝突로 可히 經濟戰爭의 樣相으로까지 尖銳化되어가고 있으며 現實的으로 開途國인 우리도 友邦 美國과는 孤出制約 및 開放壓力등 貿易關係를 깊고 있고 日本과도 酷甚한 貿易逆調에 시달리는 實情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北傀는 赤化統一의 野慾을 拋棄하지 않은채 偽裝된 平和攻勢로서의 對話戰術과 內部崩壞를 노리는 破壞工作의 兩面攻勢를 執拗하게 取하고 있습니다.

軍事分界線을 사이에 둔 彼我的 軍事的 對峙야말로 何時도 放心한 수 없는 一觸即發의 危險을 안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平和的 統一을 志向하는 純粹한 意志와 政策追求에 따라 南北國會會談을 비롯한 經濟會談 그리고 赤十字會談等 南北對話에 誠意를 다하여 應하고 있으나 恒常 好戰의이며 欺瞞의 인자들의 戰略·戰術앞에 警戒를 늦출 수 없는 것이 우리의 現實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당장 닷새後인 25일에 우리는 國會會談을 위한 두번째 南北間豫備接觸에 臨해야 할 形便에 있습니다.

한편 우리 國內情勢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86「아시아게임」과 88「올림픽」 그리고 地方自治制實施와 平和的 政權交替等 國家的 民族的 大課題를 앞에 놓고 지금 雄飛와 挫折의 간립질에 놓여 있으니 이야말로 어려운 狀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危機이든 難局이든 問에 答으로 緊要한 것은 우리가 民族的·國民的 슬기와 力量을 發揮하여 얼마만치 그 國家的 課題들을 훌륭히 처리어내는가를 世界萬邦이 注視하고 있다는 것을 切實히 認識하는 일입니다.

그 슬기와 力量의 具體的 表現의 으뜸은 말할 것도 없이 強靱하고 賢明한 政治力量의 發揮인 것입니다. 그러나 政治力量 發揮의 基調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처럼 凝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本人은 이 자리에서 率直히 우리 實相을 指摘하고자 합니다.

우리 國民들 間에는 政治에 對한 不信이

澎湃되고 있으며 爲政者를 믿지않는 傾向이 좀처럼 가시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社會에 否定的 思考가 蔓延하고 있습니다. 國民의 和合과 團結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克服하려는 求心點이 흐려져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政治人들의 責任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外債에 對한 國民의 걱정과 不安 不況에 시달리는 國民의 呼訴와 經濟現象에 對한 不信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 社會의 慢性的 痼疾이요 當面한 가장 큰 政治的 社會的 「이슈」가 되어버린 學園騷擾問題와 勞使紛糾問題가 社會不安을 더욱 深化시키고 있습니다.

以上에서 指摘한 모든 懸案問題들은 바로 우리가 이번 定期國會를 通해 次元 높은 政治力을 發揮하여 解決하고 終熄시켜야 할 政治的 課題들입니다.

날로 더욱 넘실거려가는 極端的 思考와 否定的 對決姿勢에서 一切의 我執을 決然히 扞을 털고 일어나서 幅 넓은 理解와 寬容과 和合의 美德 그리고 슬기와 智慧를 일깨우고 되살려 黨利黨略이 아닌 國利民福을 增進시키는 데 注力해야 하겠습니다. 國民의 날카로운 視線과 드높은 期待를 저버려서는 안됩니다.

議員同志 여러분! 지금 與·野黨으로 各各 나누어 앉아 있는 議員同志들은 비록 問題解決의 接近方法 및 手段에 對한 見解는 다르나 國家를 保衛하고 國利民福을 增進시키려는 目標는 같다고 本人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自由民主主義를 信奉하고 法治主義를 尊重하는 政治人들입니다. 對話와 討論과 妥協을 通해서 國政을 審議·處理하는 議會主義를 信奉하고 이를 尊崇하는 議會人들입니다.

同時에 多數의 橫暴를 止揚하고 少數意見을 尊重할 줄 아는 슬기와 少數의 獨善의 我執으로 因한 停滯에서 脫皮하여 合理的 承服으로 政治的 效果를 發揮하는 民主的 議政運營의 智慧도 다 함께 더욱한 成熟한 議會人임을 하루빨리 自處할 수 있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國會議員들이 스스로의 奮動으로 憲政秩序를 破壞하거나 無視해서는 안되며 信守하는 法治主義와 議會主義에 反하는 主張이나 舉措가 있어서도 안된 것입니다.

議員同志 여러분!

本人은 지난 5月 開院國會에서 우리의 政治運營을 물흐르듯 順理로 풀어나갈 것을 強調한 일이 있습니다. 또 機會있을 때마다 健全한 常識의 線에서 모든 問題를 받아들여 그 또한 풀어나갈 것을 力說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直面하고 있는 어려운 狀況과 問題야말로 對決과 昏迷가 아닌 順理와 對話로 풀어나가야 할 것임은 두말할 必要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번 定期國會에서 處理해야 할 새래 豫算案이나 民生問題와 直結된 案件들을 政治問題와 混同하여 審議를 遲滯시켜서도 안된 것입니다.

第12代國會가 처음 맞는 定期國會인 이번 第128回國會가 一部 觀測通이 憂慮하듯이 波瀾과 昏迷相을 露呈하여 國家的·時代的 要請을 지버리는 國會가 되느냐 아니면 政治的 問題도 能熟하게 處理하면서 本然의 國會任務와 課題도 훌륭히 審議·處理할 줄 아는 生産的 國會가 되느냐 하는 것은 오직 各 交涉團體와 議員同志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 하겠으며 또 여러분은 能히 그토록 成就할 것으로 確信합니다.

議員同志 여러분!

우리는 恒常 歷史意識과 透徹한 使命感 그리고 峻嚴한 國民의 審判臺위에 서 있다는 自意識을 지니고 이번 定期國會에 臨하십시다.

“이팔은 막막하기 때문에 닳거나 부러지지만 허는 부드럽기 때문에 닳지도 않고 부러지지도 않는다”는 老子的 말씀을 想起하면서 우리가 다 함께 性急하지 않고 慎重하게 그리고 輕薄하지 않고 眞摯하게 國政을 審議하는 姿勢를 堅持하면서 가장 어려운 時期의 定期國會를 가장 훌륭하게 政治力을 發揮하여 有終의 美를 거두었다는 評價를 받도록 努力할 것을 다 같이 期約하십시다.

9日 會期期間동안 自愛自愛하시고 健勝하

시기를 祈願하여 마치 압습니다.

感謝합니다.

1985年 9月20日

國會議長 李 載 濬

○涉外局長 安重基 이상으로 第128回國會 定期會 開會式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時28分 閉式)